

10 오피니언

사설

대학주보의 가치는 평화될 수 없다

대학주보는 지난 1689호 발행 이후, '반도체 융합 전공 시행 연기' 기사에(9월 15일자 3면) 대해 정정과 수정을 요청받았다.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는 부끄러운 일이다. 담당 기자는 물론 신문사 전체 제작 체계에서 정정을 해야 할 잘못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는 대학주보의 부끄러움보다 대학이 대학주보를 바라보는 작금의 시선을 짐작할 수 있는 계기여서 우려가 되는 사건이었다.

최소한 반도체 기사를 담당한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정정을 해야 할 오보가 있지 않았다. 취재에 응한 기획조정처는 당시 "반도체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된 사항이 없다"라며 일관된 답변을 주었다. 취재 바로 전 8월

말에 신청한 대학원 반도체 학과 신청마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신문이 발행되고 난 직후, 반도체관련 학과 신설에 대해 공개하지 않던 정보들을 공개하며 당당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해온 것이다.

"전할 말이 없다", "담당자가 부재중이다"라는 말은 대학주보 기자들이 취재를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사업 성격상 공개하기 어려운 일도 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험구하고 있던 내용을 신문이 나오자마자 공개하며 정정을 요구할 정도라면 이미 그 정보는 비밀을 요할 정도의 공개하지 못할 것이 아니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기획조정처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결국 대학주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들이 거듭된다면 결국 대학주보는

편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 홍보 매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대학 구성원 전체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 반도체 관련 기사가 발행된 이후 국제와 서울캠퍼스 관련 학과의 혼선이 빚어지고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성명서가 발표되기에 이른 것도 결국은 불완전한 정보의 유통이 한 몫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균형감 있는 시각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대학주보를 향한 불만과 우려를 알고 있다. 학생기자라는 편견으로부터 발생한 신뢰 부족, 그리고 비판적인 논조에서 느끼는 취재처의 불편함이 우려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배경이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주보에 불친절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소통, 구성원 전체의 알권리, 비판 없는 의사결정에 대한 경계 등을 추구하는 대학주보의 가치는 학생기자에 대한 편견이나 몇몇 비판기사로 평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학주보의 가치는 우리대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빛난다. 대학주보는 다만 그 발전을 대학과 구성원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도모하자는 것이다. 길었던 비대면 시기가 직접 소통의 어색함, 불편함을 불러왔다며 이제 다시 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달라진 소통의 방식도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대학주보 기자의 대학 방문도 이전 3년에 비해 현저하게 늘어날 것이다. 대학주보 역시 대학 발전의 한 주체임을 대학의 넉넉한 포용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해 본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체계적 시설 대여 위한 소통 필요성 제고

소통의 가치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대학을 뜻하는 '유니버시티(university)'는 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베르시타스(versitas)'라는 조합이 '하나(uni)'로 합쳐져 탄생했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 대학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교류의 장이자 배움의 공간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단순 학문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을 넘어 서로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적절한 공간의 마련은 이러한 교류의 시작이다.

'학원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우리학교의 정신에서도 알 수 있듯, 대학의 역할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학생과 대학 간 소통의 부재로 만들어진 입장 차이는 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시설 대여의 안전과 편의 사이에서 고민하며 생긴

간극은 대학 내 시설 사용에 어려움을 남겼다.

대면 학기가 시작되며 앞으로 캠퍼스에서는 더 많은 학생 행사가 재개될 것이다. 이에 맞춰 시설 대여의 수요 역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간 대여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과 학생의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 학생 스스로가 사용하게 될 공간이기에 시설 대여의 문제는 더 이상 학교만의 고민이 아니다. 소통을 통해 학생은 학교의 고민에 공감하고, 학교는 학생의 입장 이해하며 함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하나(uni)'라는 뜻에서 비롯된 대학의 어원은 공동의 목적을 지닌 집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만큼, '배움'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내 구성원들 간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만평 소통의 간극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준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피앤디

세시봉

파타고니아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세계를 대상으로 혁신 실험을 한 기업이 있다. 아웃도어 기업 파타고니아(Patagonia)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보통의 기업이 '이윤+a(사회적 기여)'를 추구하는 것과 달리 파타고니아는 '사회적 기여+a(이윤)'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테제를 세상에 내놓았다. 파타고니아에게 환경 보호는 단순히 마케팅 전략이 아닌 회사를 설립한 이유 그 자체다.

최근 파타고니아 창업자 이본 쉬나드는 회사 지분 100%를 기후변화 대처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했다. 또 매년 1억 달러에 이르는 미래 수익 까지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는 "이 회사가 옳은 가치를 위해서 계속 굴러갈 수 있게 됐으니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한다. 파타고니아의 행보는 타 기업들에게 환경과 경제가 어떻게 함께일 수 있는지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준다.

전 세계 기업들은 비록 보여주기식 일지라도 'ESG(환경, 사회, 지배 구조) 경영'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ESG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이 진정한 의미에서 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업에 ESG는 비재무적 요소이다 보니 가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선구적인 환경운동가 데이비드 브라우어는 "죽어버린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 이제 기업들은 겉으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서 진정한 친환경을 접목해야 한다.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에 앞장섬으로써 환경보호의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가치 있는 소비'를 고객에게 먼저 설득해야 한다.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과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파타고니아는 기후 위기가 정점에 다다랐다고 말한다. 이 기업의 경영 철학이 위기에 둔감한 우리에게 사이렌 신호가 됐길 바란다.